

칠십년사

SEVENTY YEARS' HISTORY

1923-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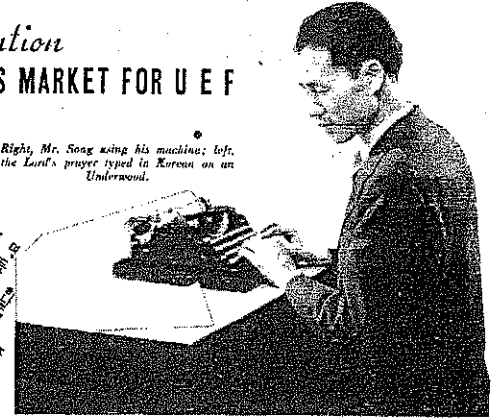
THE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CHICAGO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Korean's Invention OPENS MARKET FOR U E F

Right, Mr. Song using his machine; left, the Lord's prayer typed in Korean on an Underwood.



Impressed By Marvels Of Mechanical Writing, Keith C. Song Devises Keyboard For Oriental Language And Departs For Far East To Display Underwood Advantages To His Countrymen

▲1926년 시카고 랜드 맥 넬리 지도회사에 근무하던 청년 송기주가 한글 타자기를 발명하여 큰 뉴스거리가 됐다.

*송기주: 연희전문 졸업 후 25세때인 1925년에 도미한 그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학사 학위(B.S.)를 받고 1926년 시카고의 랜드 맥넬리 회사에서 지도 제도원으로 일하면서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다가 뉴욕으로 갔다. 그는 시카고에 있을 때 한국 지도를 최초로 서구식 입체본으로 제작했으며 한글 타자기를 고안하여 7년간의 연구 끝에 1933년 뉴욕의 언더우드 사무기회사와 제작에 합의하게 됐다.

종전에 한글 타자기가 있었으나 자판이 복잡하고 타자 열이 고르지 않아 실용성이 없었는데 언더우드-송기주 타자기는 42개 키로 현대체 한글을 고르게 찍을 수 있는 타자기로서 각광을 받았다. 귀국후 공병우 박사가 발명권 양도를 교섭했는데 이를 거절했으나 6.25때 송기주가 납북된 후 그 방식의 타자기가 공병우 박사에 의해 시장화됐다.